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 등장 인물 소개



동주. 12살

곤충채집을 좋아한다. 하고 싶은 것은 꼭 하고야마는 고집스러운 면을 지니며 밝고 장난끼가 많은 아이지만 웬지 모르게 쓸쓸한 구석이 있는 속내를 알수 없는 성격. 외향적인 면과 내향적인 면 두가지를 가지고 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라서 인지 남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여 괜히 오바스러운 행동을 많이 한다.

동주를 누나 연선이 이태 껌 키워왔는데 사춘기여서인지 요즘따라 누나에게 반항적이고 바보 엄마도 보기가 싫어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

생각하고 하는 것보단 직감적으로 움직이는 타입이라 일을 더 크게 벌려버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세화. 나이 모름

조선시대에 무심천에 빠져 죽은 아이 현재, 맨홀 아래 묻혀있는 남석교에 잠들어 있다가 아이를 잃은 한 여인으로 인해 바깥으로 나오게 되고 자신을 기억해주고 간직하지 않고 도리어 모든 생물들의 기억들이 있는 자연과 건물 모든 걸 파괴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환멸을 느끼며 기억들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하게 된다.

조용하고 과묵해서 신비로우면서도 안 좋게 말하면 차가워 보이지만 가슴 속에는 누군가에게 깊은 사랑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아이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비슷한 동주를 만나게 되고 동주와 함께 청주를 떠나려고 한다.



성규. 27살

타지에서 청주로 와 청주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는 현재 대학원 생물과를 다니고 있는 성규. 청주 곤충과 두꺼비에 관해선 빠삭한 동주를 따라 두꺼비를 조사하러 두꺼비가 있는 원흥이 마을에 오게 된다.

웬지 그곳에서 만난 동주의 누나 연선에게 마음이 있는 듯하다. 친근한 이미지로 자신이 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충

실하다. 바보같고 어리벉벉한 구석이 다분하지만 일단 생각에 잠기면 위기가 닥쳐도 차분하게 마음을 먹으며 철저하고 세세하게 분석하는 탐구가.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고 동정심이 많아 타인의 감정에 민감하다.



혜지. 12살

동주의 친구로 여자지만 남자 같은 거친 면이 있다. 동주 옆에 붙어 있으면서 웬지 모르게 동주를 감시하는 느낌이 드는 아이. 동주에게 시도 때도 없이 툭툭 불평을 내뱉는다. 동주도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다툴 때가 많지만 그러면서도 동주를 어딜 가나 챙겨주려고 하고 동주의 편이 되어주는 의리파.

감수성이 예민하여 울적하여 화를 낼 때도 많고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



민구. 12살

동주와 혜지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쑥스러움이 많고 콧물을 자주 흘쩍대는 아이  
말수가 없는 조용한 성격이지만 말을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말하고 이러 저리 감정에 잘 휘둘리지 않은 냉철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인지 자신의 감정표현을 동주나 혜지처럼 겉으로 확 들어내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다가 나중에야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조용히 꺼내는 아이



여선. 24살

동주의 친누나로 중학교때부터 가장으로써 집안을 이끌어왔다. 원래의 성격은 눈물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교통사고로 아빠를 잃고 엄마는 기억을 잃어버린 바보가 되어버리자 동주와 엄마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자퇴하고 여러 가지 잡일을 해왔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좀 더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려 노력을 하며 이를 악물고 살아온 동주의 누나, 엄마 아빠의 보살핌 없이 자란 동주가 다른 안 좋은 길로 빠질까봐 항상 매를 들고 엄하게 돌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동주에겐 누나는 억세고 엄마 같은 누나로 비춰진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생각하지도 생각할 수 도 없었지만 가슴 어딘가에는 마음껏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소녀의 꿈 같은게 자리잡고 있지 않을까...?  
시도때도 없이 밖으로 나가 돌아오지 않은 동주 때문에 가슴앓이를 많이 하고 있다.



### 동주엄마. 47살

교통사고 남편을 잃고 자신은 바보가 되어버린 동주 엄마  
동주가 아기일 때 당한 일이라 동주에게 엄마의 사랑이란  
걸 주지도 못하고 지금은 동주에 대한 기억도 없이 집안에  
서만 생활하고 있다. 멍하니 벽만 바라보는 동주 엄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 크스님. 60중반으로 추정

현재 구룡산의 안심사에 계시는 스님이다  
절벽에 떨어질 뻔 한 동주를 구해주고 구룡산의 세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주에게 주의를 준다.  
무언가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상황을 나서서 바꿔보려고  
하기보다는 주변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봐  
주고 조용히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님의 이미지답지 않게 호탕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 여인(여자스님). 나이 모름

세화의 엄마와 똑같이 무심천에 자신의 아들 도영을 잃은  
여인이다.  
세화는 자신의 아픈 기억과 비슷한 이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고 울면서 나오게 되는데 도영을 너무나 그리워한 이  
여인은 무심천에 잠들어있던 세화를 보게 되고 도영이라  
생각하며 데리고 나오게 된다. 하지만 도영의 죽음을 인정하고  
슬픔에 못 이겨 절로 들어가게 되는 가여운 여인이다.  
자신이 나오게 한 세화를 내버려둔 채.....

## <시놉시스>

청주의 수많은 생물들의 기억과 추억들이 잠들어 있는 나무, 돌, 바람, 물  
그리고 그 안에서 동주와 혜지 민구가 사슴벌레를 잡으며 뛰놀고 있다.  
동주는 그날도 청주 원홍이 방죽, 두꺼비들이 올라간다는 구룡산 자락 상수리나무 숲에서  
사슴벌레를 찾다가 나뭇가지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보니 기묘한 생김새의 한 아이와 만나게 되는데.....  
이름은 세화. 죽음과 이별을 경험하고 무심천, 이제는 땅 밑으로 숨어버린 남석교에 잠들  
면서 무심천을 돌고 돌던 세화가 밖으로 나와 동주가 만나게 되었다.  
세화는 동주에게 두꺼비의 그리움이란 말을 내뱉고 가버린다.  
동주는 멍하니 홀린 듯 세화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둘의 기묘한 만남이 있는 후.....

한창 빠른 사춘기를 지내고 있는 동주는 가슴 한쪽이 자꾸만 아파온다. 학교 친구들과의  
다툼, 동주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보 엄마, 자신을 몰라주는 누나..... 동주는 생각한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도..... 없을꺼야.)  
동주는 그렇게 밖으로 나와 버린다. 세화를 찾아.....  
(세화라면 날 다른 곳으로 데려가 줄 거야. 이곳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그러는 동안 구룡산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구룡산으로 청주의 기억들과 생명들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게 세화가 벌인 일, 청주가 가지고 있는 옛 기억들과 생명들을 생각해 주지 않은 사  
람들에게 원망을 품으며 모든 추억과 기억들을 가지고 , 그리고 자신과 비슷한 눈을 지니  
고 있는 동주와 함께 떠나려고 한다.

그 구룡산으로 그 동주와 세화 둘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고 있었다.  
동주의 누나 연선에게 사라진 동주를 꼭 찾아주겠다고 말한 뒤 이곳 원홍이 마을에 올  
때부터 느껴지던 이상한 기운이 풍기는 구룡산으로 발길을 옮긴 성규와 동주를 찾아나서  
겠다고 막무가내로 오른 혜지와 민구  
그리고 세화를 밖으로 나오게 만든 여자 스님  
이렇게 슬픔과 기쁨 아련한 꿈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룡산으로 모이고 있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  
동주는 구룡산의 기억의 늪 안에서 날아다니고 있었다.  
수많은 기억들이 동주를 지나가고 있고 동주로 하여금 그때의 그 상황을 경험하게 만든  
다. 파도처럼 몰려오는 기억으로 인해 지칠 때쯤 하나의 기억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동  
주, 그리고 그 기억이 잃어버렸던 자신이 아기일 때의 기억과 만나게 되는데  
그 기억은 동주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온 것일까?  
그리고 구룡산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금 쯤 어떤 기억을 경험하고 느끼고 있을까  
그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지금도 계속해서 태어나 숨 쉬고 있는 청주의 기억속으로 들어  
가보자.



프롤로그.

지금의 꽃다리와 무심대교가 있기 훨씬 전 남석교라는 사람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돌다리가 있었어요. 남석교에는 동쪽 동막골에 사는 아이가 잠들어 있었답니다.

#### S#1. 조선 초. 무심천변 한 초가집 마당

엄마: 세화야

세화: 네, 어머니~?

엄마: 네 약 지으러 맞은편 마을에 갔다 올 테니까 집에 얹전히 있어야 돼. 다치지 않게 조심하고

세화: 네에에에..

엄마: 스님, 다녀올 동안 세화 좀 부탁하겠습니다. 먼 길 다니느라 많이 피곤하실텐데 편히 쉬다 가세요.

스님: 염려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스님은 마루의 벽에 기대앉아 세화를 바라보고 있다.

흠장난하며 놀고있는 세화

세화: 휘요오오 휘요오오 후.....아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있다.

세화: (눈을 감으며) 히..... 시원하다.

천천히 눈을 뜨는 세화

나. 비.

나비가 팔랑팔랑 날아다닌다. 진한 노란 색을 띄고 있는 나비, 세화는 흘린 듯 나비를 바라본다. 나비 한 마리가 한참을 마당 위를 돌다 밖으로 날아가 버린다.

일어나는 세화 스님의 눈치를 살핀다.

많이 피곤했던지 어는 새 꾸벅꾸벅 졸고계시는 스님.

세화는 밖으로 나갔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던 세화는 처음으로 혼자서 바깥세상을 나오게 된다.

배경 컷. 인적이 드문 마을 거리, 주변으로는 초가집들이 길게 늘어서있다

세화, 마을 사이사이를 오르내리며 처음 느껴보는 혼자만의 비밀스런 놀이에 흠뻑 빠져버린다. 나비처럼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은 자유가 몸으로 스며드는 느낌  
세화는 바람을 느끼며 손으로 나비처럼 날개 짓 흉내를 내며 마을바깥쪽으로 가고 있다.

세화: 휘요오오오— 휘요오오오— (팔을 벌리고 바람소리를 내며 달려가는 세화)

어느새 앞을 보니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무심천에 오래된 통나무다리 앞까지 도착했다.  
여기까지 온 자신이 대견스러운 세화는 무언가 결심에 찬 눈빛으로 나무다리를 바라보고 있다.

세화: (이 다리를 건너면 어머니께서 좋아 하실 거야.....건너서 어머니에게 가볼까. )

세화는 다리를 건넜다. 한 걸음 두 걸음 통나무 나리가 흔들거린다.

(E): 끼이익. 끼이익.

통나무다리 중간까지 온 세화

나무다리 밑으로 물고기들이 지나간다. 손으로 통나무 밧줄을 꼭 잡으며 흘끗 흘끗 발 아래로 지나가는 물고기들을 바라보는 세화

세화: (눈이 반짝이며)와아..... 물고기다. 이름이 무얼까..... 너는 은색이니까 이름은 '은'이야!

눈을 떴고 다시 한 걸음 두 걸음 통나무다리를 건넌다.

바람이 불어온다. 차갑고 어두운 바람이 세화의 머리칼을 흔들며 지나간다.

세화: (이제 조금 만 조금 만.....)

무리한 탓일까, 세화의 눈빛이 희미해져간다.

세화: (아파..... 가슴이..... 답답해 하필이면 이럴 때)

손으로 가슴팍을 파악 쥐고 있는 세화

아...아아...

다리 건너편에서 엄마가 약을 가지고 오고 있다.

세화: (얇은 목소리로) 어, 엄마.....

가슴안의 통증으로 정신이 혼미해져간다.

손을 뺄으며 엄마를 몇 번 부르다 휘청거리며 통나무다리 아래로 떨어진다.

**퐁 텅!**

곧 이어 들리는 세화엄마의 비명소리

불길한 바람이 지나가고,  
처절한 울음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지고 있다.  
마을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궁금해 하나하나 몰려나온다.  
**마을 사람들 :** (수근 수근) 어머, 뭘 일이라.....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나봐.

세화엄마는 축 늘어진 세화를 안으며 대성통곡하고 있고  
마을사람들은 안쓰럽게 그 둘을 바라보고 있다.  
줄고 있던 스님도 여자의 비명 소리에 불길한 느낌이 들어 무슨 일인가 하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을 비집고 들어간다.

이미 싸늘해져버린 세화의 몸

**스님:** 아..... 이게 대체

세화엄마가 스님을 발견하고 슬퍼하던 눈이 원망스런 눈으로 변한다.

**엄마:** 당신 때문이야!!!!왜 아이가 나간 줄도 몰랐던 거냐고! 왜! 나가게 내버려 둔거야 왜!! 으흑흑으으..... 당신이 잡기만 했어도.....으흑..으...(눈물로 범벅이 된 세화엄마)

아이를 잃은 슬픔 때문에 이성을 잃은 세화엄마는 스님의 옷을 잡고 흔들며 소리를 지른다. 마을 사람들도 덩달아 스님을 원망스러운 눈길로 바라본다.

스님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흔들거리며 서 있다가 무릎을 넘어지다시피 꿇었다. 세화엄마는 잡던 손을 놓고 바닥으로 쓰러지다시피 웅크리며 대성통곡한다.

그렇게 슬픈 날이었다. 그날은..... 모두가 눈물을 흘린 날

(E): 진혼경 소리, 불경소리

진혼경 소리와 불경 소리가 들려온다. 여자의 울음소리도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세화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E): 정소리

돌을 다듬는 정소리가 이어 들리고 수많은 승려들이 돌을 나르며 새로운 다리를 만들고 있다. 돌다리, 남석교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었다.

세화는 그 남석교에 잠들게 되었다. 아픈 이별은 가슴에 품은 채 이곳에 잠들게 되었다. 이후 수많은 기억들과 함께.....

## S#2. 2000년 무심대교 아래

아이를 잃은 한 여자가 무심교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뿌린 이 곳 무심천에 흐르는 물살들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혼자서 그리움을 씹으며 쓸쓸히 서있다.

**여자:** 도영아..... 어디있는거야..... 도영아.....

그때 기이한 향수(鄉愁)가 났다. 100년 200년 1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묘한 향수소리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워했지만 인간사로 잠시 잊고 지내던 그런 향수다 그 향수는 이 무심천 아래에서 은은하게 퍼지고 있다. 아이의 우는 소리가 들린다. 청주의 젖줄인 무심천 아래에 꽃 봉우리에 피어난 아이 하나가 울고 있었다. 여자는 한참을 바라보다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안고 무심천을 나섰다. 길을 지나던 스님 한분이 여자를 보고 서



있다. 여자는 아이를 안고서 흐느끼다 언제 그랬냐는 듯 해맑게 미소를 지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스님은 기이한 공기가 감도는 여자의 손 안쪽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고 있다.

**큰스님:** 나오면 안 되는 것을 들고 나오게 되었구나. 아이의 운명이 이러하다면.....

스님은 그 자리에 홀로 서서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읊조리고 있고 여자는 그날따라 유난히도 짙게 깔린 안개 속으로 이내 모습을 감춘다.

그렇게 안개가 짙은 어느 날 무심천에 잠들어 있던 아이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엄마의 울음소리를 듣고 세화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 S#3. 상수리나무 숲

썉 썉 썉 썉

**혜지:** 야 이 동동주 놈아! 다른 길로 가자고요- 보이지도 안차나

상수리나무 숲 아래 아이들 다섯. 오월의 아직 시원한 봄바람이 남아있는 계절에.....  
곱슬머리에 까무잡잡한 남자아이(동주)가 앞장서며 풀숲을 막대기로 휘저으며 가고 있고 그 뒤로 짧은 머리를 하나로 묶은 언뜻 보면 사내아이같이 생긴 여자아이(혜지)가 투덜대고 차분한 머리에 뭉뚱바지를 입은 콧물을 연신 훔쩍대는 남자아이(민구)가 이리저리 풀숲을 살피며 뒤따라가고 있다.

**동주:** 아얏! 따가가.....(투덜대며 다리를 박박 긁고 있는 동주)

**혜지:** 그러니까 내가 머랬어 이런 풀숲은 독이 있다고! 내일이면 다리에 독 오를 거야

**동주:** 췌, 그래도 사슴벌레는 상수리나무아래에 많단 말이야 이것 들이 땅속에서 기어 나올 거야

**혜지:** 보이지도 않고만 뭘~.

**동주:** 있다니까안~ 작년에도 여기에서 여섯 마리나 잡았다고! 잡으면 혜지 너는 한 마리도 안 줄거다!

**혜지:** 언제 달라했냐 ( 동주를 노려보며 이내 못이기는 척 터벅터벅 수풀을 헤치며 가고 있다.) 췌.....

**동주:** 이상하다.. 분명이 이쯤에 있어줘야 되는데 왜 없는 거지

**혜지:** 동주야.

**동주:** 왜!!!!!! 자꾸 짜증 좀 부리지마 박혜지

**혜지:** 아, 누가 짜증부린데! 너야말로 오늘따라 왜 그렇게 신경질적이야! 여기 가시덤불까지 있다고 어쩔 거야!

**동주:** 뭘 어떻게! 사슴벌레 하나라도 찾을 때까지 절대로 안가! 못가!!

**민구:** 저기.....동주야 혜지야

**혜지 동주:** (살벌한 표정으로 고개를 획 돌며) 왜!!!!!!

**민구:** (당황하며)저, 저기 오른쪽 상수리나무 가지위에



동주의 비명소리가 온 산에 메아리치고 흩어진다.

똑 똑똑 똑똑 한 방울 두방울 비가 내리는 구룡산과 마을  
(E): 썩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시원하게 들려오는 빗소리.

동주의 비명소리를 들은 혜지와 민구 모습으로 급 화면전환.

혜지: 으악 갑자기 비야 왜! 방금까지도 멀쩡하더니...

민구: 뭐지??? 아까 동주목소리가 들렸는데

혜지: 뭘 일 있나? 가보자 동주바보 나무에서 떨어진 거 아니야?

동주: (으으..... 분명이 떨어졌는데 왜 안 아프지 심장병으로 죽은 건가.....).

맞아. 누나가 그랬어. 높은 곳에 떨어지면 당기도 전에 심장마비로 죽는다고 내가  
그렇게 죽어버린 건가. 그렇게 높아보이진 않았는데 그래. 난 아직 위인이 되기엔  
여리고 연약했던 거야 이리도 쉽게..... 쉽게.....)

파앗!!!! 눈을 뜬 동주 클로즈업

S#4. 원홍이방죽 옆길

깨어난 동주 신음소리를 토하며 깨어난다.

동주: 헉 헉 하..... (꽃..... 내음.... 차가워... 빈가? 비다..)

내리는 빗방울과 그리운 향수냄새가 난다.

동주: (내리는 빗 때문에 눈을 게슴츠레 뜨며)

(뭐지 이 냄새 어디서 맡아왔던 냄새야  
언제 맡아왔더라.....)

세화: 죽을 뻔했어...

한 아이가 동주에게 조용히 말을 한다.

동주: 누, 누구야.....? 넌...

세화: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구...

동주: 어? 나 때문에? 내가 죽을 뻔 한게 아니라.... ?

벚짐위에 대자로 뻗은 동주. 위로 머리를 하나로 묶은 이상한 복장의 차갑게 생긴 아이가  
웅크리며 동주를 뻘뻘 쳐다보고 있다.

그리고 동주 머리칼 옆으로는 검은 물체들이 훑훑 지나가고 있다.

한 녀석이 동주 머리 위로 올라간다. 미끌미끌 첩첩한 이 이상한 느낌은.....

동주: 아악!!!! 아악 아악

동주는 급하게 일어나며 자기 얼굴위로 올라탄 무언가를 탈탈 털어낸다.

‘꾸악’

동주: 두... 두꺼비...

두꺼비네.....

동주 눈앞으로 엄청난 장관이 펼쳐지고 있다.

수백 수천 그 이상의 아기두꺼비들이 대 이동을 하는 모습

동주: 우와아아..... 두꺼비들이 이동하는 건 처음봐

세화: 너 때문에 아기 두꺼비 몇 마리가 죽을 뻔 했어.... 바보같이 상수리나무 가지에서 왜 떨어지는 건지....

동주: (머야 이 이 녀석은.....) (아이를 위아래로 노려보면서) (내가 죽을 뻔 했는데 두꺼비 타령?) 야!! 너는 두꺼비가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냐! 나는 벼집위로 안 떨어졌으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었다고! 두꺼비는 많지만 나는 이 혼란스런 세상을 바꾸게 될 하나뿐인 사내이다! 내가 죽는다면 엄청난 비극이라고 비극! 알았냐!!!!!! 이 ..... 이..... ..년 누구냐 처음보는엔데??



기묘한 아이는 차갑게 동주를 한 번 노려보고 다시 갈 길을 가버린다.

동주: 야 너 지금 내 말 먹는 거냐?! 야!!! 거기서!!!

(달려가 그 아이의 어깨를 세게 손으로 움켜잡는 동주)

(그 아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조용히 무언가를 말한다.)

세화: 두꺼비들 한 마리 한 마리도 그들 나름대로의 그리움이 있는 거야 너보다 훨씬 큰

동주: .....뭐? (당황하는 동주)

그 아이는 동주의 손을 확 뿌리치며 움찔거리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가버린다

그런 아이를 동주는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뒤에선 혜지와 민구가 뭔 일이냐는 듯 달려온다.

(혜지와 민구는 두꺼비를 보며 우악 두 두꺼비 으. 열라 많다며 신음소리를 토하며 두꺼비를 한발 한발 피하며 동주에게 다가간다.)

동주: 뭐야 저 녀석…….(조용한 목소리로 혼잣말하는 동주)

혜지: 너 바보같이 거기서서 뭐하냐?!

동주: 응 아아 언제 온 거야 ? 방금 쯔 이상한 놈을……

혜지: 이상한 놈??

주위엔 아무도 없다

동주: 어...? (이러 저리 살피는 동주) 어디 갔지? 방금까지도 있었는데 이상하다

혜지와 민구, 이상한 눈으로 동주를 바라본다.

빋속으로 그 아이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멀뚱히 서있는 아이 세 명, 그 주위로 아기두꺼비들이 열심히 산을 오르려 하고 있다.

몇 초를 멍하니 흘린 듯 두꺼비들을 바라보며 서 있던 세 아이는 잠시의 환상을 접고 비를 피하러 뛰어 뛰어 집으로 돌아간다.

#### S#5. 구룡산 숲속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아이가 있었다. 동주가 만났던 방금 그 아이…… 그 아이가 가는 길엔 풀잎들이 무성하게 피었다 이내지고 아이의 주위에는 기묘한 내음이 퍼지고 있었다. 아기두꺼비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아이에게서 뿔어져 나오는 향수에 이끌리어 따라 따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두꺼비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E): 꾸악 꾸악 꾸악 꾸악

S#6. 청주 초등학교 5학년 4반 교실

쉬는 시간 종을 치는 교실 안. 종이 치기가 무섭게 엄청난 소리로 떠들고 있는 아이들  
여리저리 뛰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아니다.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는 터라 유난히도 학교 안이 시끄럽다.

무슨 일인지 몇 몇 아이들이 뒤쪽 창가에 모여 있다.

요란하게 울고 있는 두꺼비 소리가 나면서,

**병태친구1:** 우와 병태야 내가 잡은 거야? 귀엽다아~

꾸악. 꾸악. (병태 손에 잡혀 있는 두꺼비. 도망치려 발버둥 쳐도 이내 병태가 붙잡는다)

**혜지:** 뭐야.. 애기두꺼비 아냐?

두꺼비를 보고 놀란 눈으로 다가오는 혜지

**병태:** 맞아. 어제 형이랑 같이 여덟 마리나 잡았지. 그 중 한 마리야 귀엽지이??혜 지 야

병태는 잡은 두꺼비의 다리 한 쪽을 잡고 놀리며 혜지 눈앞에 달랑달랑 두꺼비를  
흔들어 대고 있다.

(E): 꾸아악!!!

고통스러운 듯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두꺼비. 혜지는 병태가 눈앞에 두꺼비를 들이밀자  
깜짝 놀라 악을 지르며 뒷걸음 질 친다. 병태와 주위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놀란 자빠지는  
혜지를 보며 웃고 있고 혜지는 병태를 노려보며 뭐라 말 하려는 찰나 앞에서 조용히 앉  
아있던 한 아이가 비웃으며 뒤돌아 말한다.

**동주:** 잘하는 짓이다 병태야 두꺼비를 잡다니 말야

**병태:** 니가 무슨 상관인데- 어차피 두꺼비는 밖에 널리고 널렸다고

**동주:** (순간, 동주의 눈빛이 진지해지면서) 두꺼비..... 한 마리 한 마라도 그들 나름대로  
의 그리움이 있는 거야 (동주는 자기도 모르게 어제 그 아이가 한 말을 읊조린다.  
자기가 말하고도 잠시 당황하는 동주)

아이들은 잠시 동주를 뻘뻘 쳐다보다가

**아이들:** 풋, 푸하하하하! (크게 웃어버린다)

그 중 병태가 웃음을 참고 동주에게 말을 잇는데

**병태:** 뭐야?? 동주~ 이상한 소리나 지껄이고 또 시비 거는 거냐? 별 것 도 아닌 게.. 키키

**동주:** (얼굴이 붉어진다.)

**병태:** 아, 맞다. 동주 너! 어제 나무에서 떨어졌다면?? **민구랑 혜지**가 말해주더라 거기  
서 뭘 하고 있었냐??

**혜지:** (정색하며) 병태 너.....

**병태:** 설마.....나무위에 약이 있었던 거야? **바보** 병이 치료되는 약이었어??

**동주:** (동주의 얼굴이 굳어진다.)

**병태:** 효자 났구나! 효자아~동주효자(흥얼거리며 놀리는 병태)

순간, 이성을 잃고 동주가 병태 얼굴을 주먹으로 친다.

(E): 펑!!

병태는 의자에서 떨어지고 서로 뒹굴며 이리 치고 저리 치는데 곧 안가서 동주는 큰 몸집의 병태에게 눌러버린다. 병태는 큰 몸집으로 동주를 계속 누르며 얼굴을 주먹으로 연신 갈겨댄다.

말리기는커녕 옆에서 동그렇게 자리를 펴주고 옆에서 환성을 지르는 아이들과 안절부절 못하는 혜지와 민구

**아이들:** 우와아!! 병태랑 동주가 싸운다아!!

**병태 친구들:** 이겨! 눌러버려! 와아!

**병태 친구1:** 야야야야 뒸다 뒸다!! 대머리 독수리 뒸다!!!!!!!!!!!!!!

대머리 독수리 뒸단 소리에 아이들은 발 빠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잼싸게 앉는다. 앉자마자 정말 대머리 독수리처럼 생긴 선생님이 나타나시며

**선생님:** 야 이놈들아! 어서 싸움질이야!

**아이들:** (소곤거리며) 에이, 한참 재밌었는데

동주와 병태는 자리에 앉아 씩씩거리며 서로를 노려보고 있다.

그렇게 어수선했던 학교가 끝이 나고 하룻길

S#7. 학교 앞 내리막 길

동주와 민구 혜지 세 사람이 걸어간다.

민구가 동주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민구:** (나지막하게) 동주야..... 괜찮아??

**혜지:** (홍분한 목소리로) 정말 병태 녀석 별 받을 거야 내가 장담하지!! 안 받는다면 내가 매일 저주를 걸겠어!!!!.. 나쁜 놈 어떻게 그런 말을 하나. 정말.....

**동주:** 그렇게 애쓸 필요 없어.(혜지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대꾸한다)

멈춰 버린 세 사람

**혜지:** 설마.....병태가 한 말 믿는 거 아니지?? 야, 민구랑 나는 병태한테...

**동주:** 하- 내가 왜 병태자식 말을 들겠냐!? 나, 간다. 미안한데 나 먼저 갈게.

그렇게 말하고 동주는 혼자 달려가 버린다. 멀리서 병태와 친구들이 달려가고 있는 동주를 향해 들리라는 듯이 크게 놀리고 장난치며 걸어가고 있다.

혜지, 고개를 획 돌려 그들을 노려보며

**혜지:** 야 이 변태병태 개놈아!!!!!!

동주 걸어가면서 생각한다.

**동주:** (누구와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떠나고 싶다 학교도 집도 다 싫어졌어....)

그러면서 자꾸만 그때 그 아이가 떠오르는 동주.

**동주:** (이 곳을 벗어나보고 싶다 멀리 멀리 떠나고 싶어.)

지겹고 짜증나.....



S#8. 가을의 무심대교 아래

안경을 쓰고 머리는 5대 5 가르마를 한 키 크고 뻘뻘마른 스무 살 중반쯤으로 보이는 사내 한 명이 목에는 카메라를 걸고 물 가장자리를 왔다 갔다 하며 수첩에 무언가를 계속 적고 있다. 그의 이름은 최성규 나이는 스물여덟. 현재 생물학 대학원생으로 졸업과제로 청주생태학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성규: 확실히.... 음.....저번보다 생물수가 많이 줄었어.... 이것 만 찍고 다른 델 가볼까... 골몰히 진지한 얼굴로 무언 갈 바라보며 사진을 찍으려는 찰나, 등 뒤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동주: 뭐하는 거예요? 아저씨???

성규: 어, 어 어 으, 으아아악!!!

(E): 풍 덩!!!!

갑자기 나타난 아이로 인해 깜짝 놀란 최성규는 진흙에 미끄러지며 물 안으로 빠져버린다.

성규: 으가갸갸갸... 으웁, 다 젖어버렸네.. 뭐야 넌!!!!

웃기게 물에 빠진 아저씨를 보며 동주는 천진난만하게 배를 움켜지며 웃고 있다.



배경 컷.

무심천이다. 가을이 다가오자 무수한 갈대들과 이름 모를 잡초들 그리고 이제 막 몽우리를 트기 시작한 코스모스들이 부드럽게 춤을 추고 있다.



**푸에취이!**

몇 분이 지나고 웃웃을 벗고 탈탈 털고 있는 최성규. 헛기침을 두 번하고

**성규:** 꼬마야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니? 중요한 걸 관찰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말이야...  
우에취!

**동주:** 뭔데요??

**성규:** 잠자리가 유충으로 변화하는 경의적인 순간을 찍고 있었다고!! 크흥~!쿵 (코를푼다)

**동주:** 그걸 왜 찍는 건데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저씨를 쳐다보는 동주)

**성규:** 그거야 이 쉽게 볼 수 없는 생명의 기적을 도심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하고 기록으로도 남기기 위해서란다. 이 개구쟁이 녀석아..

**동주:** 뭐예요 그게~ 이런 건 직접 봐야지 안다고요! 잠자리 애벌레는 여기에도 많고 저기 우리 마을에도 많이 있는데 뭣 하러 사진으로 보려고 하는지..... 거 참 어른들은 이상하다니깐

**성규:**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 어른이 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여유’ 라는 걸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버리거든

**동주:** (천진난만하게) 히히

**성규:** 그래 마음껏 놀아라. 맘 편할 때 놀아야지 에휴~ 뭐 그럴 듯한 조사거리가 없나

**동주:** 왜요? 다른 잠자리도 찾아보려고요?? 내가 이쪽 곤충이랑 개구리에 대한 건 빠삭하다고요! 우암 산에도 잡으러 갔고 구룡산은 거의 만날 가다시피해요 지금쯤 썩은 나무 뒤져보면 사슴벌레 애벌.

**성규:** 오오~! 방금 개구리라고 했어?! 글면 원헌이 방죽에 사는 두꺼비에 관해서도 잘 알겠네~!

**동주:** 그럼요~! 이번에 애기두꺼비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도 봤다고요~!!

**성규:** 으아아아아싸 심봤구나~! 제대로 찾아왔어! (덩실덩실 춤을 춘다)

**동주:** (이상하다는 듯이 성규와의 거리를 두며 쳐다본다)

**성규:** 아, 음, 음..... 미안 너무 흥분한 나머지 호호 그거라면 논문에 쓸거리가 차고도 넘치겠군! 내 소개를 하마 나는 앞으로 한국을 대표할 생물학자가 될 순수청년 최성규란다! 아저씨라 부르지 말고 형이라 부르렴. 넌 이름이 뭐냐 (동주의 불똥기를 잡아당기며) 요 귀여운 녀석아~~!

**동주:** (아파하며) 으으으 도, 동동주예요

**성규:** 프훗(이름을 듣고 뺨은 최성규) 카아~ 동동주 ㅋㅋ 꼭 취할 듯 한 이름인데~

동동주란 이름을 듣고 웃고 있는 최성규를 노려보며 최성규의 발을 꺾악 밟아버린다.

**까울~~**

아파하며 지르는 최성규의 괴상한 비명이 무심천 밖까지 메아리친다.

## **S#9. 무심천에 어두운 공기에 착 가라앉은 밤**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만이 찌룩 찌룩 울려 퍼지고 있다.

조그만 2인용 텐트에 환한 불빛이 밝혀지고 있고 두 명의 그림자가 불빛을 향해 날아오는 벌레들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있다.

**동주:** 성규아저씨

성규: 성규 형이라 불러 이놈아 아직 장가도 안 갔다고

동주: 아저씨, 그런데 언제까지 이곳에 죽치고 있을꺼예요?

성규: (입을 삐죽 내밀면서)너야말로 꼬맹이 주제에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꺼냐 부모님 걱정하겠담 -마...

동주: 체, 아마 나 같은 건 생각도 안하고 있을걸요. 그리고 나도 이제 다 컸다고요!

성규: 이런 속없는 녀석, 객기부리지 말고 택시비 줄 테니까 언능 가라 줘.

동주: 나도 찾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성규: 아까부터 계속.... 누군데! 그 머리 묶고 예전부터 알고 있는 냄새가 난다는 이상한 옷차림의 아이가! 여기엔 우리 말고 아무도 없잖아 내가 보기엔 네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 동동주야

동주: (성규를 노려보다 한숨을 푸학 쉬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여기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그냥 그 아이를 보면서 이곳이 떠올랐어요. 다시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 애는 웬지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걸 말해줄 것 같았거든요 다시 만나보고 싶어요. 잊으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서.....

성규: 음.....(곰곰이 생각하는 순수청년 최성규)

성규: 아!! 알았다!

동주: 뭐가요?

성규: 횡~(히죽히죽 웃으며) 상사병이야 그건~

동주: 상사병요?? 뭐예요! 병이에요? 설마 죽는 병!!!! 안된 단 말이에요!!! 나는 세상을 바꿔야할 인물이란 말이야, 벌써 죽으면!!!!

성규: 으악 애 왜이래~! 상사병은 죽는 게 아니야 뭐, 치료법이 꽤나 까다롭지만 말이지~

동주: 에?

성규: 일명 그 . 리 . 움의 병! 이젠 그 사람과 만나야지만 치료되는 병이야

동주: 에엑.... 그, 그런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음.....

성규: 올 커니!! 나도 도와주마. 그 아이를 찾는 거 말이야

동주: 진짜요~!?

성규: 그대시~인! 네가 이 곳 지리랑 곤충 사는 곳은 빠삭한 것 같으니 알려 주렴 그 두꺼비들이 모이는 산도 말이야

동주: 으음..... 좋아요 내일 가자고요!

성규: 좋았어! 그럼 우선 이 곳 우암산을 들린 다음 너희 마을에 있는 방죽이랑 구룡산까지 둘러보자고웃! 인간 최성규! 드디어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 된 것인가 으헉 두근 두근 거리는 고만 으라앗!!

동주: (거참 이상한 어른이야)

동주는 한심하다는 얼굴로 최성규를 쳐다보며 한숨을 쉬고 최성규는 그런 동주의 머리에 주먹을 대고 격하게 돌린다.

성규: 이노옴!! 꼬맹이가 한숨을 쉬다니! 나의 부비부비주먹맛을 보아라아!!

동주: 아악!

그렇게 두 남자의 시끄러운 밤이 지나가고

S#10. 안개가 낀 새벽. 동주의 꿈속

뒤척거리는 소리에 동주가 깨어난다.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다 낯선 분위기에 화들짝 놀라는데.....

이곳은 동주가 알던 무심천이 아니다 물이 흐르는 곳은 맞긴 한데 무심대교가 없고 주위 건물들도 사라지고 저 멀리 옛날 기왓집과 초가집 몇 개가 보일 뿐 주위가 온통 숲처럼 풀과 나무들이 우거져 있다. 하늘에는 무심천에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반딧불이 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동주:** 머, 머야 여긴..... 꿈인가.....(불을 꼬집으며)아얏! 아픈데 이상하다  
안개 속으로 인기척이 들린다.

그 곳엔 돌다리가 뻗뻗뻗 반대편 물까지 이어지고 있었고 그 위로 사람 그림자가 흔들 흔들 거리고 있다. 몇 초가 흐르고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그림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동주:** 너는 그때.....

동주가 만나고 싶어 하던 기묘한 아이가 돌다리 위에 서있다. 그때와 똑같은 표정과 모습으로 동주를 바라보고 있다.

**세화:** 아름답지? 기묘한 아이가 또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는다.

**동주:** 어? 뭐라고?

**세화:** 이곳이 내가 살던 곳이야 네가 이때껏 살았던 그곳과는 전혀 판판 일 거야 이곳 어딘 가에도 네가 그토록 바라는 무언가가 있을 테지 이곳은 이곳에 살던 모든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리움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천천히 속삭이듯이 말하는 기묘한 아이..... 웬지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만 같다.

**동주:** (몽롱해진 눈으로) 내가 바라는 거.....내가..... 이곳은.....

향수가 난다. 눈이 점점 감기고 동주는 자기가 정말 그리고 그리던 사람을.....떠올려본다. 누군가가 따뜻한 목소리로 부르고 있다. 여자 목소리.... 동주야아.....하고 부르는 누구더라 이 목소리는..... 알았었는데 누구지..

저 멀리서 우는 소리가 들려온다. 돌다리 저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진혼경 소리. 돌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땅. 땅. 땅. 무슨 일일까

**세화:** 너도 나와 비슷한 그리움이 있구나

기묘한 아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동주를 바라보며 말한다.

동주야 동주야!!!!!!(동주를 부르는 목소리)

**성규:** 얌마 야 동동주! 일어나라고 야야

짹 짹

눈을 천천히 뜨는 동주. 눈에는 눈물이 맺혀있다.

**성규:** 드디어 일어났고만~ 무슨 꿈을 그렇게 꾸냐 눈물까지 흘리고 거 참 내가니 잠꼬대에 췌다. 정신 차리고! 일어나 가자! 으아- 새벽이니까 겁나 쌀쌀하네. 우에취이!!!

**동주:** 봤어요.

**성규:** 뭘?

**동주:** 그 아이

**성규:** 찌찌 얼마나 보고 싶으면 이 형아는 가슴이 찡하구나. 오늘 한번 찾아보자 곤충도 찾고 말이지 어서 일어나! 우선 목욕탕엘 좀 가자. 꾸질 꾸질 이러고 식당가면 냄새난다고 쫓겨날테니깐~!

#### S#11. 텐트를 걷고 무심천을 떠나는 그들

목욕탕에 간 동주와 성규, 동주는 물 안에서 방구를 끼며 시원한 듯 몸을 댕다. 성규는 코를 막으며 동주에게 뭐라 뭐라 하다가 서로를 보며 크게 웃는다. 식당에서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동주와 성규. 너무 게걸스럽게 먹고 있어 주위사람들이 입을 떡 벌리며 쳐다보고 있다. 우암산 중턱까지 오르며 이리저리 곤충들과 식물들을 찾아보지만 오늘따라 유난히도 보이지가 않는다.

**동주:** (투덜대며) 에이 체, 이산은 참 재미가 업구만~ 아저씨 다른 데로 가봐요!

성규는 여기저기 돌 밑을 바라본다. 혼이 빠져나간 듯 한 돌이다

**성규:** (산 전체가 잠을 자고 있는 건가.....)

산으로 내려오는 두 사람 그렇게 하루해가 다 지나가고 저녁쯤에 동주가 사는 원흥이 마을에 도착하는 모습들이 내레이션으로 물 흐르듯이 보여 지고 있다

#### S#12. 원흥이마을 버스 정류장

부르르릉 달달달달 버스에서 두 사람이 내린다.

**성규:** (기지개를 펴며) 으으으 씹아!! 드디어 원흥이 마을에 도착했구나! 그렇게 강촌까지는 아닌데 꽤 건물들도 있고. 우선! 너희 집에 가자 내가 텔 다줄게

**동주:** (뒗걸음질 치며) 싫어요. 집에 가는 거..... 그냥 계속 같이 다니면 안 돼요??

**성규:** 왜이래 이 녀석이! 암마, 벌써 하루가 지났어- 부모님 계속 걱정끼칠거야?? 나도 너희 집엘 좀 가야겠다. 우선 죄송하다고부터 해야겠어. 내 잘못도 있으니까 말이야

동주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꼭 물고 버티다가 큰 소리로 말한다.

**동주:** 알았어요! 간다고요 그 대신 오지 말아요. 나 혼자 갈 테니까

동주는 그렇게 말하고 쏜살같이 달려가 버린다.

**성규:** 어, 어 동주야 같이 가자니까!

무시하고 계속 달려가 버리는 동주

**성규:** (저 녀석 그냥 가버리네 집에 무슨 일 있는 건가.....)

성규는 멀뚱히 달려가는 동주를 바라본다. 그리고 뒤에서 들리는 동주를 찾는 어린 목소리들

#### S#13. 동주 집.

지붕은 아슬아슬하게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벽 위를 버티며 누워있고 넓은 마당에는 쓸쓸한 빈 개 밥그릇만이 나 뒹굴고 있는 집

동주는 방문을 연다. 꽤쾌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동주: 으악, 냄새 (코를 막는다.)

바보 엄마다. 바보 엄마는 히죽 히죽 웃으며 방안에서 쭈그리며 앉아있다.

동주엄마: 헤헤 헤헤 부릉 부릉

동주: 아이씨 엄마 왜 또 방에다 오줌 샀어!!!! 누나는 아직 안 들어왔어?

엄마는 동주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동주: 엄마! 말해봐 말 말!!! 누나는 어디 갔냐고! (언성이 높아지는 동주)

동주엄마 : 으으으윽.. 으으으윽 (동주의 엄마는 갑자기 흐느끼며 운다.)

동주: 아 왜 또 우는 건데 웃다가 울면 엉덩이에 빨난다고.

엄마는 계속 딴 짓만 하고 있다. 걸레를 가져와 박박 닦는 동주

동주가 걸레를 닦는 모습을 보며 엄마가 다시 히죽히죽 웃는다. 슬퍼지는 동주

그때 대문이 확 열리면서 누나가 눈이 충혈 된 상태로 나타난다. 긴 생머리에 다소곳하면서 당당하게 생긴 누나, 이름은 연선이다.

연선: 야 동동주!!!!!!!!!!!!!!!!!!!!!!

동주: 으익..

화가 많이 나왔다.

동주: 아..... 누나 잘 있었어?(어색하게 웃는 동주)

연선: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어떻게 말도 안하고 그동안 어디 있었어! 엉? 누나가 널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이나 알아? 너! 손바닥 대!! 맞아야 정신 차리지 응?!!!! 친구랑 헤지도 같이 찾아다녔어 정말 누나랑 친구들이랑 계속 이렇게 걱정 끼칠 거야 !!! 안되겠다, 매 어디 있어, 매!

동주: 아 왜 또 그래! 나도 이제 다 컸다고! 엄마도 아니면서 누나는 왜 맨날 그러는데! 누나가 엄마야!!!!

동주, 그대로 냅다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다.

동주: 엄마도 아니면서!!

연선: 야 동주!!!!!!!!!! 동동주!!!!!!!!!!

동주가 대문을 돌 던 중 성규가 동주의 집 대문 앞에 나타난다. 동주는 못 본 척 그대로 계속 달려가 버리고 성규는 당황하며 ‘동주야?!’ 하고 부르다 동주의 누나를 보자 순간 돌처럼 굳어버린다. 옆에는 혜지와 민구가 성규 옆에 멀뚱히 서있는데 우연히 동주를 찾고 있는 성규를 만나 이곳으로 안내 한 듯하다.

혜지가 이상한 듯 동주의 누나에게 말한다.

혜지: 언니 무슨 일이야?

동주의 누나는 후우 한숨을 푹 쉰다.

성규: (성규 마음을 가다듬고 어색하게 웃으며) 저기 동주 누나이신가 보네요.

연선, 의미심장하게 성규를 바라본다.

성규: (최대한 남자답게 목소리를 깔며 부드럽게)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청주생물 조사를 하게 된 최성규라고 합니다. 어제 동주랑 같이 있었는데 미리 연락 못 드려서 어제는 정, 정말이지 죄송하게 됐습니다.

웬일인지 성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

민구: (민구, 붉어진 성규를 쳐다보며) 아저씨 얼굴이 빨개졌어.

성규: 내가 아저씨 아니라고 했지!!!!

연선: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던 동주 누나 연선이, 성규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풀며 말한다)  
아 저야말로 죄송해요 동주 녀석이 또 붙잡고 집에 안 들어온다 했죠? 하아- 이 자-식이  
증말 이제 모르는 사람까지!!!!

털털하고 화끈하게 말하는 그녀다

그때 뒤에서 동주의 엄마가 나온다. 머리는 풀어헤치고 옷에는 여기저기 이물질들이 묻어  
있다.

동주엄마: (성규를 보며) 어, 여보 여보아 여보다아 여보오!!!!!!!!!!!!!!!!!!!!!! 연선아빠아

연선: 아 엄마 왜 나왔어 추운데 들어가자. 들어가자 (성규를 보며) 죄송해요. 많이 놀라  
셨죠?

성규: 아아 괜찮습니다. 바쁘신데 저야말로 죄송하죠~

연선: (연선, 엄마를 부축하면서 혜지와 민구에게 ) 애들아 미안한데 동주 좀 찾아줄래?  
가서 위로의 말이라도 해주라

혜지 민구 :예쎄!! (혜지랑 민구, 동주가 뛰어간 곳으로 달려간다.)

성규는 측은한 얼굴을 지으며 한참을 연선을 바라보다 마지막 어색한 인사를 하고 가려  
는데..

연선: 들어오세요. 멀리서 오신 분 같은데 시원한 물 한잔이라도 마시고 가세요.

성규: 아……. 예!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S#14: 원흥이 방죽과 구룡산 사이

동주는 방죽 끄트머리 자신이 나무에 떨어졌던 그 자리에 앉아있다. 이상하다 이 상황에  
서 자꾸 자꾸 그 아이가 떠오른다. (내가 그리운 것 내가 그리운 것…….) 동주는 산을 바  
라보고 있다 (저곳에 두꺼비들이 살고 있겠지 두꺼비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 까? 두꺼  
비들은 왜 모두 산으로 가는 거지 왜, 왜, 그 곳엔 무언가 있기 때문일까? 그들이 보고  
싶어 하는 누군가 있기 때문에? 그 곳에 가면 그 아이도 만날 수 있을 지도 몰라……. 맞  
아 그곳에 가면 내 슬픔을 감싸줄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을 지도 몰라. 두꺼비들처럼 말야.)

동주는 산에 오른다. 그때처럼 어두운 구름이 모이고 있었다. 구룡산으로…….

신발 한 짝이 가지에 걸려 벗겨지지만 동주는 아무것도 느껴지지않은 듯 그대로 산으  
로. 산으로 올라가버린다.

혜지: 어 저기 동주다!

혜지 민구: 동주야아!! 동주!!

방죽 너머 산을 오르는 동주를 혜지와 민구가 계속해서 불러도 보지만 동주는 안 들리는  
건지 들려도 모른 척 하는 건지 숲 사이로 그렇게 사라져 버린다.

구름이 몰려오더니 구룡산과 마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S#15. 구룡산

헉 헉 헉

헤지와 민구, 산을 힘들게 오르고 있다.

헤지: 뭐야 동주 저 녀석, 불러도 대답도 안하고

민구: 헤지야 내려가자 비도오고 날도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고

헤지: 안 돼 에!!! 동주 혼자 저렇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갈수가 있어!!

보랏빛 기운이 산을 덮어가고 있다. 그 기운 탓인지 헤지와 민구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이 터덜터덜 산을 오르고 있다.

민구: 몸이 막 나른해져가는 것 같아

헤지: 아.....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꾸.....

푸욱.....! 힘없이 쓰러지는 두 아이

S#16. 기억의 늪

산에 올라가고 있는 동주는 이미 다른 세계에 와있다

안개가 낀 산으로 가고 있는 동주, 환상처럼 모든 소리가 산 사이를 울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꿈처럼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 곳을 향 해 호기심어린 얼굴로 다가가는 동주

아이들은 웃고 떠들면서 자치기를 하고 있었다. 모두 옛날한복차림의 꽤 재재한 얼굴의 아이들이다. 그 중 한명이 동주를 발견하고 이리 오라고 한다.

동주: (나?)

그런데 이상하다 분명히 나와 비슷한 또래의 나이같은데 내가 훨씬 작게 느껴진다. 뭐지?

동주: 멍! 멍! (뭐야 내가 왜 개소리를 내는 거지?)

동주는 개가 되어있었다 개의 시선으로 모든 걸 보고 있는 것이다.

개가 된 동주가 아이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화면이 바뀐다.

하늘이다 하늘을 날고 있다. 바람을 가르며 모든 감촉이 온 몸으로 느껴진다.

동주도 잠시 당황하지만 하늘의 신선한 바람을 이내 느끼며 날고 있다.

동주: (우와아아아아아! 하늘을 날고 있어!)

어디서 징, 장구,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린다.

동주: (무슨 일이지?)

소리가 나는 곳으로 날아가는 동주 새 한 마리

축제이다. 여기 저기 먹을거리가 있는 상들과 이야기를 하며 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옆 넓은 광장에선 화려한 옷을 입은 한 무동이 시원하게 팔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고 옆에선 농악대들이 징과 장구 북 등을 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주위에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덩달아 모여 노래하며 춤을 추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그들. 동주 새마저도 분위기에 취해 노래를 한다.

분위기가 잠시 잠잠해지고 동주 새가 날개를 펴 다른 곳으로 가려는 찰나 또 다시 화면이 바뀐다.

숲이다 아름다운 숲이다.

산새들 소리, 매미 소리 동주는 지금 제일 높은 곳에서 나무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장관을 바라보고 있다.

**동주:** (뭐지 이 느낌은.....발밑에서부터 숨소리가 들리고 있어)

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감촉이다. 동주는 이 숲 전체를 느끼고 있었다. 숲 전체가 숨을 쉬며 서로를 느끼고 있었다.

**동주:** (정말 슬프도록 아름답다)

그런데 저 멀리서 수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친구들의 숨소리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나의 가족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 죽어가는 소리가 들린다.

왜에에에에에

숲이 순식간에 죽음의 냄새로 가득 찬다.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 울려 퍼지고 드디어 동주 앞까지 다가온 검은 그림자. 사람들은 동주 밑에서 뭐라 말하고 있다.

**인부1:** 우와 엄청 큰 나문데??

**인부2:** 몇 백 년은 산 나무같고만..... 이런 나무는 죽이기가 아까운데 말이야

**인부1:** 그래도 어찌겠어. 상부의 지신데 이 나무 팔면 꽤나 돈 나오겠네. 이거

**인부2:** 그만하고 시작하자고 빨리 여길 벗어나고 싶으니까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고통이 밀려온다. 이렇게 마지막인건가.

커다란 나무가 넘어간다. 나무 밑에 있던 조그만 생물들이 놀라 도망치고 숲 전체는 이 오래된 숲의 주인이 죽어가는 소리에 슬퍼하며 울고 있다.

**동주:** 으 으아아아아아악 하지 말라고!!!!!!!!!!!!!!!!!!!!

화면이 바뀐다.

**동주:** 뭐지 또 바뀐 건가..... 이곳은 어디야.....

**동주:**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아, 사람이다

동주는 한 아이가 되어있었다. 초가집 앞마당에서 이 아이는 흙장난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지 손에는 흙으로 뒤편이 되어있었다.

집 안에서는 한 스님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동주는 밖으로 나가본다. 생소한 풍경이다. 앞으로 기다란 강물이 흐르고 있고 강물 위로는 허술한 나무다리가 아슬아슬하게 이편과 저편을 잇고 있었다.

**동주:** (이곳, 어디선가 본 곳이야 어디에서 봤더라..... 맞아 그때 그 꿈에서 봤던 곳! 하지만 그때는 둘다리였는데 이상하다 그새 바꿨나? 하긴, 바꿀 만도 하다 이렇게 허술한데~) (동주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리를 건넌다. 끼익 끼익)

밑으로 흐르는 강물을 보다가 그곳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는 동주

강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놀랍게도 그때 그 아이의 얼굴이었다. 기묘한 아이

**세화:** 안녕

**동주:** !!!

물에 비친 그림자가 동주에게 말을 걸고 있었다.

그 아이는 희죽 희죽 웃으며 동주를 바라보고 있다.



**세화:** 이상한 걸. 내 기억에 네가 들어오다니 말이야. 그렇다면..... 너도 나처럼 곧..... 물에 빠지게 되겠구나! 한 번 느껴봐 내가 느꼈던 고통을 말이야.

그 아이는 동주를 밀어버린다. 중심을 잃고 다리에서 떨어져 버리려는 동주  
저 멀리서 한 아주머니가 놀래며 뛰어오고 있다.

세화의 모습인 동주는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외친다.

**세화, 동주:** 엄마야!!

탁. 누군가 떨어질 뻔 한 동주의 손을 붙잡고 있다.

화면이 바뀌면서 현실로 돌아왔다. 얼굴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고 주위는 어두컴컴한 숲들이 보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동주 밑으로 절벽이 아스라이 비춰지고

**동주:** (절벽을 내려다보며) 으아아아아악!

**S#17. 구룡산 속 절벽**

머리에 갓을 쓴 나이가 드신 스님 한 분이 절벽에 떨어질 뻔 한 동주를 붙잡고 있었고 동주는 그렇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큰스님:** 괜찮으냐?

**동주:** 헉 헉 으아- 죽을 뻔했다 고, 고맙습니다.

(아직 충격이 가시지 않은 동주가 별별 떨면서 말하고 있다.)

**큰스님:** 이놈아!! 왜 이 밤중에 산을 오른 거냐! 밤 산이 얼마나 위험한데 뒤에 너희 친구들은 다 쓰러져있고 너는 절벽으로 가고 있고 정말 늙은이 심장 떨어질 뻔 했다.

**동주:** (고개를 숙이며) 죄송해요 스님

**큰스님:** 휴..... 밤이 깊었으니 오늘은 절로 가자 꾸나. 친구들 좀 깨워봐라 아직 숨은 붙어있는 것 같으니까

**동주:** 아..... 네!

혀를 차고 계시는 스님, 동주는 친구들에게 다가간다.

**동주:** (흔들면서) 혜지야 민구야 일어나 빨리

**혜지, 민구:** 으... 음

어기적 일어나는 혜지와 민구, 동주를 발견하고 벌떡 일어난다.

**혜지:**(울먹거리면서) 으아~ 동주야 어디 있었어! 정말 왜 말도 안 듣고 계속 올라간 건데!!

**S#18. 비가 내리는 어두 어둑해진 마을**

혜지와 민구 그리고 동주가 없어진 걸 알고 혜지, 민구 부모님과 동주 누나 그리고 성규가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아이들을 찾고 있다.

동주야아-! 혜지야아-! 민구야아-! 동주야 어딴니이-

누나는 비오는 날 사라진 아이들을 찾다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주저앉는다.

성규는 주저앉아 울고 있는 연선에게 다가간다.

**S#19. 동주의 집 안,**

비 소리가 점점 더 강하게 들려온다. 엄마는 무슨 일인지 주무시지 않고 문 앞에 조용히

앉아있다.

동주엄마: 동주야.....

나지막하게 동주를 부르고 있는 엄마

## S#20. 마을 밖

성규: 걱정 마십쇼! 동주 고 녀석, 꽤 영악한 게 보통 녀석이 아니니까 괜찮을 겁니다! 연선씨.

연선: 으윽.....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화를 내지만 않았어도

성규: 아니에요 아니에요! 연선씨 아무 잘못 없습니다! 있다면 이 곳은 날씨겠죠! 분명 비 피하러 어디 조그만 창고 같은데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에-잇 나쁜 비! 나쁜 비! (애꿎은 비만 툭툭 치며 연선을 달래려 애쓰고 있다)

연선: 으윽..... 으..... (고개를 푹 숙인 연선, 울음을 참으려하고 있다)

성규: 연선씨.....

측은해지는 성규. 몸이 불편한 엄마 돌보랴 개구쟁이에 한창 사춘기인 동주 돌보랴 누구보다도 힘들었을 그녀일 꺼다. 지금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해 울고 있는 것이라. 그것 마저도 가장이라는 이름에 울음을 참고 있는 연선.

성규는 마음을 다잡고 주저앉은 연선 앞에 앉아 그녀의 어깨에 두 손을 얹으며 말한다.

성규: 울어도 돼요 연선씨..... 마음껏 울어요

연선: 으흠 으. 으.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으 으 흠 흠

성규는 연선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성규: 여기서 몸 좀 녹이고 계세요.

연선: (걱정스러운 얼굴로 성규를 쳐다보며) 저기.....

연선은 동주를 잃은 슬픔과 동시에 느껴보지 못해본 감정을 느끼게 된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란 안심. 무얼까. 엄마 챙기랴 동생 챙기랴 악착같이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온 자신을 이 사람이 보듬어주고 달래주고 있다.( 처음이야.....이런 거 내가 기대본 적이..... 난 항상 혼자서만 싸웠는데.....)

연선: 흠..... 흠..... 고마워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으윽

연선은 성규 앞에서 아이처럼 크게 울음을 토했다

그간의 설움을 말해주는 것처럼 크게 더 크게.....

연선: 으아아아아아앙 으..으 으.... 으아아 아.....

정적 비가 조금씩 멈추고 있고 성규는 안고 있던 팔을 천천히 푼다.

성규: 걱정 마세요! 연선씨! 비도 슬슬 그치고 있네요. 이래 뵈도 여기저기 갈 곳 못 갈 곳 안 가본 곳이 없어서 사람 느끼는 거엔 탁월한 놈입니다. 제가 동주랑 동주친구들 꼭 찾아 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따뜻한 곳에 가서 몸이라도 녹이고 있으세요.

손을 흔들며 빗 속으로 이내 사라지는 성규

성규의 뒷모습을 가슴을 졸이며 안 보일 때까지 지켜보는 연선.

성규, 아이들을 찾다가 산을 바라본다. 구룡산.....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곳

성규: 아까부터 이상 했어 저 산. 다른 산과는 다른 기운이 감돈다. 무슨 일인거지

(E): 꾸악 꾸악

성규: 두꺼비가 왜 여기.....

(지금 이 곳에 있으면 안 되는 두꺼비. 겨울잠을 잘 준비를 하러 가야 될 시기인데 이 산은 겨울잠을 잘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 되어있기는커녕 어디로 떠나려는 산 같아. 무심천에서 잠잘 때 느껴지던 그 기운과 비슷하다. 다른 산에 보이지 않았던 생물들이 여기로 모두 모인 건.....)

성규: 뭐 확인 하려면 가는 수밖에 없겠지 동주 그놈도 이산의 기운에 빨려 들어간 걸지도 모르니까

발에 무언가가 걸린다. 동주의 신발 한 짝

성규: 아니, 분명하고만 쫓

그렇게 성규도 구룡산을 오르게 된다.

## S#21. 구룡산의 안심사

한 스님이 밥을 가지고 들어온다. 여자스님이다.

아이들은 여자스님을 신기하게 바라본다.

혜지: (속삭이며) 우와 여자스님도 있구나~

동주, 민구: (진지한 얼굴로 끄덕 끄덕)

여자스님과 방금 동주를 구해준 큰 스님이 기도 손을 하며 인사를 하고 아이들도 그 둘을 보며 따라 감사의 인사를 한다.

그 여자스님은 아이들을 보며 쓸쓸하게 미소를 짓고 방문을 열고 나간다.

혜지: 웬지 되게 슬퍼 보이는 스님이다.

동주, 민구: 응.(진지한 얼굴로 끄덕 끄덕)

스님과 세 아이가 밥을 먹고 있다.

민구: 우아~ 이게 절밥이구나! 정말 다 풀 밖에 없네!

큰스님: 그래 어떠냐. 풀 맛도 꽤 괜찮지?

민구: (쓱스럽게) 해해

스님은 무섭고 조용 하실 줄 알았는데 장난스럽고 털털하신 분이다.

처음 접해본 절밥을 장난스럽게 먹고 있는 아이들

시간이 흐르고 이곳에 적응이 되자 혜지가 방금 생각 난 듯 말을 꺼낸다.

혜지: 나 잠잘 때 꿈을 꿔는데요. 정말 굉장한 꿈이었어요! 내가 어떤 공간을 날아다니고 옛날사람들도 만났는데 꿈이 아니라 현실 같았대니까요!! 또 수달이 돼서 물 안에서 헤엄치고 막.

동주: (눈을 둥그렇게 뜨며) 혜지 너도 꿈 거야??!!

혜지: 너도 꿔어?! 우와 신기하다~!

동주: 아, 내 꿈이랑 비슷해서 나도 내가 다른 것으로 변하는 꿈을 꿔

민구: (꽃물을 닦으며 자랑스럽게) 헤..... 난 꿈에서 직지심체요절을 안에 들어가서 봤다고~ 거기선 내가 어른이 되어있었어 그 곳에 있던 스님들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다~! 히히

스님, 아이들의 대화를 진지하게 들으며

큰스님: 기억이다

아이 셋은 동시에 스님을 바라본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르고

스님 손가락을 놓으며 말을 잇는다.

큰스님: 너희 셋은 이곳에 숨 쉬며 살아있던, 지금도 살고 있는 수많은 생물들의 과거와 현재의 기억들을 봤던 게야..... 무심천을 지키던 한 아이가 이 산으로 이 지역의 모든 기억을 모으고 있어 아직 어린 너희들은 그 순수한 기억의 결정을 더 쉽게 느꼈던 거겠지.

동주: 큰스님..... 혹시 그 아이 머리를 하나로 묶고 한복을 입고 있나요?...

큰스님: 보았구나..... 그래, 세화다

동그란 눈으로 스님을 바라보는 동주

동주: (눈을 돌리며) (이름이 세화구나..)

큰스님: 조심하는 게 좋겠다. 특히 동주

동주: 네? 저요??

큰스님: 너는 꿈을 꺾도 몸으로 움직이며 느낄 수 있다. 아까 절벽에서처럼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해. 방금처럼 운 좋게 내가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동주: 아 네..... (고개를 반 쯤 푹 숙이는 동주)

깊은 밤. 아이들은 무척이나 피곤했는지 드르렁 코를 골며 대자로 뻗으며 자고 있다. 비는 아까보다는 더 조용히 내리고 있다.

어두운 숲을 보며 스님이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한다.

큰스님: 그 아이가 모든 산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구나.

..... 너도 느꼈겠지 네가 밖으로 데려온 아이가 이곳까지 왔다.

어두운 그림자 속 한 여인이 나타난다. 방금 밥을 들고 방에 들어왔던 여자 스님 슬프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서있다.

S#22. 구룡산 속

헉 헉 헉 헉

성규: (여의가 없는 듯 웃고 있다.) 하하하.....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원.

지친 모습이 역력한 성규가 커다란 돌 위로 푹 앉는다.

주위모습이 보인다.

놀랍게도 수많은 두꺼비들과 잠자리들 귀뚜라미와 새들 등 많은 생물들이 성규주위에 앉아 있다. 성규 머리위로 커다란 두꺼비 한 마리가 올라와 꾸악하고 놀리는 듯 소리를 낸다.

성규: 야 이 바보둥둥주야 어디있냐아!!!!!!!!!!!!!!!!!!!!!!

성규의 고향에 놀란 주위 곤충들과 새들이 먼지를 날리며 도망친다.  
그때 성규 옆에 커다란 두꺼비가 도망치지 않고 앉아있다.

신기한 성규는 두꺼비를 손으로 쿡 쿡 건드려본다. 그러자 두꺼비가.....

**두꺼비:** 거 되게 시끄럽네.

두꺼비가 말을 한다. 놀란 성규 경직되며

**성규:** !!! 그, 그래 마자 이건 꿈일 거야 꿈 (성규는 자신의 볼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다)  
하하 이런 아프잖아 아아... 마자마자 저번에도 아팠는데 꿈이었던 적이 있잖아~ 그래, 하  
하하 요즘 내가 너무 무리했나봐 두꺼비가 말하는 꿈도 꾸고

**두꺼비:** 흥, 지금 당신이 우리들의 꿈속으로 들어온 거야 바보인간 꾸악.

성규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간다.

**성규:** 으,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또다시 성규의 고향소리가 메아리친다.

### S#23. 안심사.

동주, 계속 뒤척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동주: 으응... 오줌마려

오줌이 마려운지 잠에서 깨어 절 밖으로 나가는 동주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 마당에다 바로 싸 버리고 있다.

그때 옆 쪽 풀숲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동주: 뭐, 뭐야.... 누 누구야!

풀숲이 들썩 들썩거린다.

긴장하며 뒤척이는 풀숲을 계속 쳐다보는 동주

**파악!!!!**

동주: 으악!!!!!!!!!!!!

동주: 아, 아저씨!!

성규: 하아 드디어 찾았네. 휴..... 가자

동주: 아저씨 어떻게 온 거예요 여긴!

성규: 어떻게 오긴 네 신발보고 이곳으로 온 줄 알았지. 따라와 누나도 왔다고

동주: 누나? 어디 있어요? 누나는.....

성규: 저기 풀숲으로 쪽 가야 돼.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 빨리 와. 누나랑 내가 널 얼  
마나 찾아다녔는데

동주 뒤따라간다.

### S#24. 조용한 구룡산 숲

또 다시 주위가 이상해진다. 또 다시 꿈을 꾸는 몽롱한 기분

동주는 얼굴을 때리며 정신을 차리고 성규를 보는데…….  
성규는 온데간데없어지고 앞에는 세화가 서있다.

**동주:!!!!!!** 너는! 아저씨는 어찌고 네가 나타나는 거야!!!!!! 아저씨를 어쨌어!

(절벽 사건 이유로 세화를 경계하는 동주)

**세화:** 방금 본 그 사람은 단지 기억일 뿐이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미안해 그땐…….

나도 모르게 슬퍼져서 그랬어. 그래도 스님이 구해주셨잖아? 살았으면 된 거지 안 그래?

**동주:** (흥분하며 소리친다) 뭐야! 정말…….(슬픈 표정을 지으며)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넌 단지 나쁜 유령일 뿐이었어.

**세화:** 지금.

**동주:**……… (노려보며)

**세화:** 모두가 가려고 하고 있어

**동주:** 무슨 소리야. 그게…….

**세화:** 생물들과 모든 기억들이 이제 곧 떠날 거야.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인간들만 빼고  
말이지 나는 그 기억들을 다 떠나보낼 거야 이곳은 이제 쓸모가 없는 곳이니까.

**동주:** 왜 그러는 건데! 넌 이곳의 강물을 지키던 아이잖아. 그런데 왜 기억들을 가지고 가  
버리려는 건데!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세화:** 나는……. 그들을 사랑했어. 물을 지키며 사람들을 도와주었지……. 하지만 그들이  
먼저 날 버린 거야. 옛날엔 기억해주고 지켜줬는데 지금은……. 나는 나를 위해 만들어  
준 다리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덮어버릴 때도 무척이나 슬펐지만 기억해줄 줄 알았어. 같  
이 슬퍼해주면서 말이야. 하지만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 다 잊어버린 거야 사람들은…  
모든 생명들이 아끼고 모아둔 기억들을 말이야. 도리어 없애버리고 있어 하나 둘 씩 파괴  
하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나는 질렸다고 이런 거……. 후. 모두가 날 전혀 생각하지 않  
아. 지키려고 생각도 안하고 다 잊어버린 거야 (세화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동주:**………(할 말을 잃어버린 표정의 아이)

무언가 동질감이 느껴진다. 나를 못 알아보는 엄마. 화를 내는 누나. 놀리는 친구들의 모  
습이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동주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든다.

윗배를 손으로 누르는 동주, 무척이나 아려온다.

**동주:** (아파..)

**세화:** 나는 이곳을 떠나려고 해. 나와 한 마음이 된 생물들과 숲, 마을에 흩어져있던 기억  
들을 모두 가지고 말이야.

세화, 동주에게 다가간다.

동주는 고개를 푹 숙이다가 세화가 앞까지 다가오자 고개를 들어 힘없이 바라본다.

**세화:** 너도 같이 가자.

동주와 세화, 정적이 감싸이는 숲에 조용히 서있다.

손을 내미는 세화

**세화:** 잡아. 네가 이곳으로 발을 들여놓았다는 건 우리와 마음이 같다는 거겠지.

기억들과 함께 이곳을 벗어나보는 거야 더 넓은 곳으로.

동주의 손이 떨리면서 세화가 내민 손으로 다가가고 있다.

천천히.... 천천히.....

이내 둘은 손을 맞잡는다.

손을 잡자마자 동주의 몸이 힘없이 쓰러진다.

(E): 푸욱.

동주의 기억이 빠져나가 버린 것일까. 차갑게 누워있는 동주, 동주의 기억은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쓰러진 동주의 몸을 세화가 쓸쓸히 지켜보다 자신도 가려는 찰나

**여자스님:** 세화야.....

여자스님이 세화 앞에 나타났다.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세화 뒤돌아 싸늘하게 여자스님을 바라본다.

## **S#25. 지금 그 시각 성규는..... 성규와 두꺼비의 꿈**

성규와 그 커다란 두꺼비는 언제 친해졌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규:** 내가 그럼 환각을 보고 있는 건가. 그래 너는 두꺼비고 나도 지금 두꺼비의 말을 하고 있으니 두꺼비가 된 거겠지.... 음.....

**두꺼비:** 뭘 소리야 친구.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웬지 지금은 내가 자네의 기억 속으로 들어 간 것 같네만.....

**성규:** 오호! (헛갈리는군. 하지만 몰랐어, 두꺼비들도 나름 어찌면 인간보다도 더 체계적인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걸지도 개미의 페로몬처럼 말이야)

성규와 두꺼비 둘 사이에 감동적이지만 뭔가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두꺼비:** 그래, 우리 서로를 어느 정도 안 것 같으니 이곳을 벗어나야 겠구만.

**성규:** (아쉬워하며) 뭐야 벌써 헤어질라 고오~

**두꺼비:** 우리는 강을 지키던 아이를 따라 이곳에 와서 기억사이를 헤엄치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 하지만 깨달았지 당신을 만나고부터

**성규:** (감동을 먹은 듯) 두꺼비야.....

성규와 두꺼비의 주위가 핑크빛으로 물들여지고 둘의 눈가가 축축이 젖는다.

**두꺼비:** (멋있는 표정을 지으며) 나의 동료들에게 말해야겠어. 인간 중에는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하는 인간이 있다고 말이야. 우리는 오랜 옛날, 조상 때부터 살아온 이 땅을 굳이 떠나고 싶지 않았거든. 하도 우리 두꺼비를 막무가내로 잡아가는 멧돼지처럼 생긴 인간아 이 한 놈 때문에 이곳을 잠시 벗어나고 싶었지만 말이야. 만약에 돌아가면 우리를 좀 도와주게. 요즘 지형이 하도 바뀌고 날씨도 예전만치 좋지가 않아서 말이지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해 도와주지 않겠나. 친구여..?

**성규:** (눈물을 흘리며) 그래 나의 하나뿐인 두꺼비 친구! 내가...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들을 지켜줄게 으헹헹

**두꺼비:** ㅎㅎ 말이라도 고맙네...

서로를 애뜻하게 바라본다. 종을 뛰어넘는 기적의 시간. 그 이름하야 **친구!**

S#26. 조용한 구룡산 숲

세화와 여자 스님사이. 긴장의 공기가 흐르고 있다.

무표정으로 여자 스님을 바라보던 세화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기억들이 흩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세화:** (뭐야....! 왜 다 돌아가고 있는 거지?! 무슨 일인거야 대체..)

세화의 기억의 조각 하나가 생물들에게 가서 말을 건넨다.

생물들이 모두 자신의 자리로 하나 둘 돌아가고 있었다.

**세화:** 너희들 왜 가버리는 거니?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와 세화에게 말을 건다.

**잠자리 :** 내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졌어. 그리고 한 두꺼비가 우리들을 지켜줄 인간을 만났데. 인간도 우리처럼 따뜻한 온기가 있는 생물이라고 말해줬거든~

**세화:** 뭐??

세화의 정신이 당황하면서 여자 스님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왔다.

**세화:** (허탈 한 듯 코웃음을 치며) 하, 인간의 말을 믿다니 지켜줄지 누가 알고 모두 바보야 바보라고! 인간은 거짓말쟁이란 말이야!

여자스님이 다가온다.

**세화:** 오지 마 오지 말라고!!! 당신이 뭘 알아!!

세화가 오지 말라고 소리치지만 자꾸만 다가오는 여자 스님

세화: 오지 말!.....

**세화를 꼬옥 안는다.**

여자 스님은 세화를 꼬옥 안고 화내던 세화가 긴장이 풀린 듯 그대로 정지된 것처럼 가만히 서있다. 세화의 눈물 한 방울이 불을 타고 내려온다.

**여자 스님:** (흐느끼며 따뜻한 목소리로) 미안해..... 세화야 미안해 엄마가, 엄마가 너무 미안해.... 많이..... 아팠지.....

**세화:** 어..... 머니.....

세화는 손을 들어 여자 스님에게 꼬옥 안긴다.



배경 컷.

안길 때의 그 짧은 몇 분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시간처럼 흐르고 있었다.  
곤충과 새 개미들과 아름다운 옛 기억들이 청주의 모든 지역으로 흩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잠시의 안김이 풀어지고 세화가 조용히 말을 꺼낸다.

**세화:** 미안해요.....

**여자 스님:** 나야 말로 내 죽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조용히 잠들고 있는 너를 깨우고 데리고 왔구나. 미안하다.

**세화:**.....

**여자 스님:** 너희 어머니를 대신해 이렇게 꼬옥 안겨주는 거야. 너희 엄마가 널 얼마나 안아주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나에게까지 오래전에 살던 너희 엄마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았거든.

**세화:** .....고마워요

세화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진다. 웃지 않던 세화가 처음으로 행복한 웃음을 짓는다.

비가 완전히 그치고 동쪽 산 너머로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다.

**세화:** 아! 동주가 아직!!

동주의 비어버린 몸을 보며 이제야 깨달은 세화

**세화:** 동주를 데리고 와야겠어요..... 저기.....

**여자스님:** 왜 그러니?

**세화:** 도영이란 아이.....

**여자스님:**.....(도영이란 이름을 듣고 잠시 얼굴이 굳다 이내 풀어지며 미소를 짓는다)  
그래 우리 도영이를 보았니?

**세화:** 네..... 도영이를 알아요 그때, 무심천에서 놀던 아이  
도영이의 기억이 무심천을 흐르고 있어요.

**여자스님:** 그래.....그렇구나. 잘 지내고 있는 걸까.....

**세화:** 네!! 행복해하고 있어요. 엄마와 다른 생물들의 기억이랑 놀면서.....

**여자스님:** 그래..... 다행이다(눈물을 흘리며 안심어린 미소를 짓는다.)

우리 도영이를 잘 지켜줄 수 있겠니.....?

**세화:** 네, 그럴 게요. (잔잔하게 웃는다.)

세화, 여자스님에게 서둘러 인사를 하고 동주의 기억을 찾으러 들어간다.

S#27. 기억의 늪



동주는 아직도 기억 사이를 돌아다니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수많은 기억들을 경험해서 인지 많이 지쳐 있는 모습의 동주  
그래도 기억들은 멈추지 않고 동주를 끌어들이고 있었다.  
지금 또 다른 기억 속에 들어와 있는 중이다.  
뭐지? 여긴 차안인데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말이 나오지가 않는다.  
웅알웅알

**동주:** !!!!!

그 기억은.....동주가 아가일 때의 기억이었다!  
어렸을 적 지금은 찾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져 버렸던 자신의 아기 때의 기억으로 들어간  
동주. 차를 타고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앞줄에 아버지가 보인다. 운전을 하고 계신다.  
사진으로만 봐왔던 아빠가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운전을 하고 계셨다.  
**동주:** 웅알 웅알 (아빠 아빠)  
동주아가는 울음을 터뜨리며 아빠를 불러보았다.  
**동주** 똑, 똑, 거의 다 왔다~

동주는 방금 소리를 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고개를 위로 드니 엄마의 얼굴이 보인다  
엄마다! 바보엄마가 아닌 엄마가 동주를 안고 앉아계신다.

잘따란 팔로 엄마의 얼굴을 향해 뻗어보지만 닿지가 않는다.

동주 엄마: 드디어 우리 집이 생긴다니 너무 좋아요 동주도 좋치이~ 우르르 까꿍~어아  
어아

동주아빠: 그나저나 연선이가 늦게 끝나네

동주엄마: 이제 중학생이니까요

동주아빠: 학교는 잘 다닌데?

동주엄마: 그러게요 걱정된다니깐. 초등학교 때 시도 때도 없이 울던 애가 잘 하고 있나  
몰라 동주야, 네가 크면 누나한테 울지 말라고 해야 돼~ 알았지이?! 우리 동주는 씩씩해  
서 잘 울지도 않아요!~

동주: 까르르 (동주아가가 웃는다.)

(강해보이는 누나가 초등학교 때는 울보였구나 )

시간이 흐른다. 고요하게. 부드럽게. 이대로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동주는 생각한다. 이 행  
복이 오래 오래 오래도록 영원히. 이 기억 속에 잠들고 싶어.....

하지만 곧 안가. 동주는 갑자기 불길한 느낌과 함께 무언가 떠오른다.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누나 때면..... 우리가 원흥이마을로 이사 간 날인데 잠깐만,  
이사간 날이면..... 아, )

### 차사고!!!!!!!!!!!!!!

동주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평온한 잠에서 깬다.

위에서 엄마가 꾸벅 꾸벅 졸고 계셨다. 비몽사몽한 모습의 아빠 그리고 앞에서 무섭게  
달려오는 차 한 대

동주: 으아아아앙 (일어나요!! 아빠! 아빠!)

동주 아가가 시끄럽게 운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동주의 울음소리에 정신을 차린 아빠가 앞차를 발견하고

아빠: 으악! (핸들을 급하게 돌리는 아빠.)

### 끼이이이이이의 콧양!!!

아빠가 앞으로 다가오는 차를 보고 핸드를 꺾어 피하려 했지만 그대로 앞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모든 행복과 고요함이 그렇게 산산조각 났다.

나는 이 상황에서 왜 죽지 않았을까. 살아남았다. 왜일까. 왜일까.

눈을 조심히 떴다. 동주는 머리가 조금 어지럽고 엄마가 너무 짝 잡아 몸이 좀 답답할 뿐  
아무 이상 없이 팔짱한 모습 그대로였다. 동주의 얼굴로 뜨거운 무언가가 떨어진다.

피.....

엄마다. 엄마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앞 의자에 기대어 동주를 바라보고 있다.

동주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바라보고 있다.

동주: (엄마..... 왜 그런 거야..)

머리가 다친 엄마는 무언가 중얼중얼 거린다.

동주엄마: (조그만 목소리로) 괜찮아. 괜찮아. 동주야 괜찮아.....많이 놀랐지이..

엄마는 피가 나고 있는 자신의 머리는 안중에도 없는지 놀란 동주를 달래고 있었다.

동주: 엄마!! 엄마아!!!!!!!!!!!!!!

엄마의 목소리가 희미해져간다 .

동주야 미안해

그렇게 사고 난 차안. 동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세화가 나타났다 왜일까. 세화의 얼굴이 예전처럼 차가운 얼굴이 아니다.

동주가 슬픈 눈. 애원하는 눈으로 세화를 바라보고 있다.

동주: (예전으로 돌려줘 엄마 아빠가 있을 때로 그 때로 돌아가고 싶어)



세화: 모두가 다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 너도 이제 몸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야

동주: (눈을 스르르 감는다.)

S#28. 구룡산 숲.

동주의 기억이 몸으로 돌아왔다. 동주는 몸으로 돌아왔어도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쭈그러 누워 하염없이 울고 있다.

**세화:** 일어나 네 친구들, 모두 산 밑으로 내려갔어. 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널 기다리고 있어.

동주 무엇 때문인지 갑자기 별떡 일어나 곧 장 산 밑으로 달려간다.  
달린다. 풀숲을 헤치며 미친 듯이 달리는 동주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를 부르며 달려간다. 동주는 엄마를 부르며 산을 내려오고 있다.

S#29. 산 밖

산 밖으로 나온 동주

밖으로 나오니 환한 빛이 동주의 시야를 가린다.

빛이 가라앉자 그 곳엔 119구급 대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들 산에서 나온 동주를 보며 한 사람이 ‘동주도 나왔어!’ 하며 소리치고 곧, 동주를 부르는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린다.

**혜지, 민구 :** 동주야아!!!

**동주누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있다) 동주이눔아! 왜 흑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누나는... 누나는 너가 뭘 일 생긴 줄 알고 흑흑 얼마나 무서웠는데 동주 너마저 잃어버린 줄 흑흑 알았단 말야 이 바보 녀석아..

**동주:** 누나.....

동주, 달려가 누나를 안는다.

**동주:** 미안해 누나. 잘못했어.

**연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고 있다)

**동주:** (장난 끼 있는 얼굴로) 누나 울지 마!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얼굴이 더 못쓰게 됐잖아! 내가 산에서 엄마기억이랑 만났는데 울보누나한테 울지 말라고 해 달랬어.

**연선:** (눈물을 참으며) 인마 누나가 꼭. 언제 울었다고...... 담부턴 사라지지만 이 철부지 녀석아!!

성규가 산에서 막 나온다.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성규를 동시에 쳐다보고 있다.

**성규:** 아..... 마을의 기억을 지킨 이 몸을 보기위해 모인건가. 그래. 난 이 마을의 영웅이 된 거야..... 후훗

성규, 자신을 마음껏 안으라는 듯 팔을 뻗고 눈을 감으며 서있는다.

곧, 관심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왁자지껄 하던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였다.

**성규:** (고개를 푹 숙이며) 하 하 하 히힃..... (쓱쓱해한다.)

비도 완전히 멈추고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왔다. 혜지와 민구 두 사람도 부모님에게 안기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 동주와 성규 연선만이 마지막까지 있다가 슬슬 가려고 일어난

다.  
그런데.

**동주야**

누군가가 앞에 서있다. 그곳에..... 바보엄마가 서있다

연선과 동주 성규가 놀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동주:** 어,... 엄마? (돌아온 건.....가)

동주엄마의 바보 같던 눈이 달라져있다. 차안에서 본 엄마의 눈이다.

부드러운 눈으로 연선과 동주를 바라본다. 하지만 이내.....

**동주엄마:** (울상을 지으며) 으아아아아앙~ 동주어딴었어 아프다..... 엄마는 아프다 동주 사라지지마. 사라지지마 으아앙~!!!!

**동주:** 아.....

엄마는..... 여전히 바보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동주는 다가가 엄마를 안는다.

엄마이다. 바보가 되었어도 나를 사랑하는 우리 엄마 나를 위해 바보가 되어버린 엄마이다. 동주가 엄마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한다.

**동주:** 엄마..... 고마워요

**동주엄마:** 흑흑 (울음을 멈추고 흐느낀다)

**사랑해요 엄마**

모든 게 끝이 났다. 모든 기억들이 제자리로 돌아갔고 동물들은 이제 올 겨울을 나기위한 준비를 뒤늦게 서두른다.

시끌벅적한 사람들 뒤에 스님과 세화가 서있다

**큰스님:** 모든 게 잘 마무리가 된 모양이로구나.

으흠, 그래 너는 이제 어쩔 것이냐 세화야 (편안한 미소를 띠며 세화를 바라본다)

**세화:**(고개를 돌리며) 돌아가야죠. 이제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무심천으로 돌아가 이제 막 새롭게 피어난 기억들을 돌볼 거예요 예전의 기억들과 함께요

**큰스님:** 넌 참 착한 아이로구나 세화야

**세화:**.....(얼굴이 빨개지는 세화) 착했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큰스님:** 그렇구나. 만약에 네가 착해서 이곳으로 오지 않고 암전히 잠만 자고 있었다면 사람들과 다른 생명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했을 테지 서로에 대한 믿음을 말이다.

그렇다면..... 착한 것보단 나쁜 것이 좋은 건가.....? 크하하하하(호탕하게 웃는 스님) 나쁜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았구나! 잘했다 세화야~!!

**세화:** (그런 스님을 이상하게 쳐다보다 자신도 함께 웃는다.)

화면이 밝아진다.

화면이 천천히 뜨기 시작하고.

S#30. 동주집 마당

이삿짐을 차에 싣고 있는 사람들  
오늘은 동주가 이사를 가는 날이다.  
혜지와 민구가 왔다.

혜지: (울먹이며) 야 동동주. 흑 너 꼭 다시 와야 해 알았지? 알았어! 몰랐어!

동주: (눈물을 거칠게 한 번 닦으며) 당연히 오지!!! 엄청난 사람이 돼서 올 테니까 두고  
봐 박혜지!! 내가 이 땅 다 사버릴꺼야! 네 집도!!!

혜지: 바보. 내가 그 전에 다 살거다. (눈을 닦으며 슬며시 웃는다)

민구: 동주야 이거 받아

동주: 뭐야 이게?

두 개의 병, 병 속엔 흙이랑 물이 들어있다.

민구: 구룡산 흙이랑 방죽물이랑 넣었어. 히히(콧물을 훌쩍대며 쑥스러운 듯이 웃는다)

동주: 와아.....(병을 가까이서 보며) 병에 담으니까 예쁘다. 고마워 민구야

차가 출발한다.

연선: 빨리 타 동주 혜지야 민구 안녕~!!!

혜지. 민구: 잘가요~~!! 잘가 !!! 동주야!!!

동주: 잘 있어!! 꼭 다시 올게! 고마워!!! 고마워!!!

(E): 부릉 붕 붕 부우우우우웅~

S#31. 무심대교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 무심천을 달리고 있는 차

성규: 와~ 노을 참 예쁘게도 졌네요!

연선: 고마워요. 버스타고 가도 됐는데

성규: 뭘요! 아는 사람끼리 당연한 걸 가지고 뭘~

무심천을 거의 다 지나갈 무렵

엄마 손을 꼭 잡은 동주가 무언가 생각난 듯

동주: 멈춰봐요!

성규: 응?

동주: 멈춰봐요 멈춰봐! 잠깐만!

차가 멈추고 동주가 무심천 아래로 달려간다.

무심천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세화라는 아이를 떠올리며 혹시나 그 아이가 있나 뚫어지게 무심대고 안쪽을 쳐다보는 동주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강물로 돌아와 이 곳 주위를 돌며 청주를 감싸고 있는 걸까.....

동주는 흙이 담겨져있는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무심천의 물을 담는다.

어딘가에 있을 세화에게 말을 거는 동주

동주: 우리들의 기억들을 잘 지켜줘, 나중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말이야..... 잘 있어

말을 마치고 곧바로 차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동주

(E): 타악. (차 문 닫는 소리)

차안.

동주: 가요 이제~!

성규: 뭐 했냐? 거기서

동주: 물 담았어요.

성규: 물은 왜? (시동을 켜고 출발하는 차)

동주: 그냥요, 가져가고 싶어서

성규: 너도 참 보면 볼수록 특이하단 말야. 연선씨 동주 키우느라 고생많으셨겠어요

연선: 말도 마세요. 정말 동주 넌! 크면 누나한테 죄다 갚아야되. 알았냐!!

동주: 아, 왜 또그래 누나!

배경 컷, 노을 진 도로를 시원하게 달리는 성규차가 계속 보이고 동주와 연선 성규의 시끄러운 말소리가 들린다.

동주: 누나니까 당연한 거잖아!

연선: 머야!

성규: 그래도 동주는 마음속으로 누나를 엄청 생각하고 있겠지잉~

동주: 아니야!! (누나를 보며 메롱 하면서) 돼지이-

연선: 뭐야 이 맹구녀석이!

성규: 그마아안~ 하하하(어색하게 웃는 성규)

차 밖으로 계속 동주와 연선의 말싸움 소리가 들려온다.

## S#32. 무심천

무심천에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며 거닐고 있다. 세화.....

석교동

돌다리 아래로

맑은 물이 흘렀대요

빨래도 했대요♪

이름만 남아 있지만



남문로 사람들은  
남문 위에서♪  
북문로 사람들은  
북문 위에서  
우리 고장을 지켜 왔대요♪

상당산성  
튼튼한 성벽 위에 서면  
들려오는  
드높은 함성 소리♪

용두사지  
철당간 앞에 서면  
은은히 울려오는  
천년 전의 종소리♪

무심천 아이들은  
우암산 메아리로  
옛이야기를 들으며  
고운 꿈을 꾸지요  
튼튼하게 자라지요♪

<신수영 '무심천 아이들' 시 >